

순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상반기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산책·음식·숙박·치유 가능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상



순천시가 조곡동에 건축중인 반려동물문화센터 조감도.

반려동물과 산책, 식음, 숙박, 치유할 수 있는 반려 동물 테마파크가 순천에 들어선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특화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까지 추산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함께 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반려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비반려인에게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목표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곡동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축하고 있다. 부지 3104㎡, 4층 건축 연면적 2658㎡ 규모로 건립중인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장, 영상관, 실내 놀이공간, 입양홍보실, 반려인 휴식공간 등을 갖춘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삼베' 보전가치·우수성 알린다

북내면 '삼베짜는 여인상' 설치

'삼베의 고장' 보성 북내면 '삼베 짜는 여인상'이 설치됐다. <사진> 보성군은 지난 24일 북내면 회전교차로에서 '삼베 짜는 여인상'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윤정관 면민회장, 이인재 이장협의회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보성삼베는 1990년대 전국 삼베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다. 한때는 전국 유통의 60%를 책임지기도 했다. 현재는 주암댐 건설 등으로 재배면적이 급감한 상황이다. 보성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성삼베의 전통적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와 함께 '삼베 짜는 여인상'을 제작·설치했다. 박상준 북내면장은 "북내면의 문화유산이자 지역 특산물인 삼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이다"며 "지역 소득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포화' 위생매립장 대체 목포 자원회수시설 2025년 완공

978억 들여 대양동에 市, 한화건설과 협약



포화상태인 목포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대체할 자원회수시설이 목포시 대양동에 들어선다. 목포시는 지난 25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목포에코드림 주식회사' 대표사인 (주)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으로 양측은 대양동 부지에 총사업비 978억 원을 투입해 시설 용량 하루 220t 소각열회수시설과 6.5MW 전력 생산 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사 기간은 30개월, 관리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995년 위생매립장을 설치해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률이 포화상태인

98%에 도달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대안 시급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 목포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체할 대안 시설을 확보한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목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경찰, 산업단지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단지 내 교통시설 개선 운영

목포경찰이 지난 24일 목포시 내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산업단지 교통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전남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목포시청, 도로교통공단, 목포상공회의소,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목포경찰은 간담회를 통해 사고위험구간 안전시설 개선, 교통흐름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대책방안들을 논의했으며 '교통안전

협약체'를 구성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장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목포경찰은 산단 내 정체나 사고 등 교통장애 발생 시 교통 불만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원활한 물류 흐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차복영 목포경찰서장은 "교통안전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주민이 안전한 목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양 쓰레기 줄이자'...광양시, 하천·하구 정화사업

광양시가 깨끗한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3월 말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읍면동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인근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마·태풍 등으로 큰비가 내리는 5·10월에는 섬진강을 따라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용역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매년 1800㎡이상 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섬진강 하구와 광양만의 수질 환경 개선은 물론 매년 1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할 예정이다. 김재희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시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